

광주 기업주치의센터 중소기업 컨설팅 낙제점

인포마스터, 기술·경영·금융 지원 미달 지경부·산단공 다음달말 위탁업체 교체

광주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광주단지 기업주치의센터가 지식경제부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광주 기업주치의센터 위탁사업자인 컨설팅 회사 '인포마스터'와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하고 오는 3월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12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전국 산업단지 4곳에 설치된 기업주치의센터(광주, 경기 반월시화, 경남 창원, 경북 구미)에 대해 '기업주치의센터 사업 연차 평가'를 가진 결과, 광주와 창원, 반월시화 3곳이 기준점을 채우지 못했다. 이 가운데 광주단지 센터는 기술과 경영, 금융 등 3개 컨설팅 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 초반을 받아 기준인 70점을 밑돌았다고 산단공 관계자는 설

명했다. 광주단지 센터는 한국산업공단 호남권본부에 입주해 있으며 지난 2011년 4월 민간 경영 컨설팅업체인 인포마스터가 위탁 운영을 맡은 경영 및 기술주치의 10명과 기업은행이 업무 협력한 4명의 금융주치의로 구성됐다. 인포마스터는 광주지역 광산업 이해가 깊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 선정됐다. 위탁운영사업자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단지 센터는 '단기코칭' 247건, '맞춤형컨설팅' 68건, '중견기업육성' 41건, '기업역량강화' 43회 등을 수행했지만 실제 컨설팅의 품질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단공 관계자는 "컨설팅을 실시한 뒤 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광주 센터는 미약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노출됐다"며 "조직운영과 관리, 컨설팅 품질 등의 부분에서 역량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광주 센터는 마케팅과 인력양성, 지속적 기술개발을 통한 주력 수출상품 발굴, 글로벌시장 개척, 경영효율화를 통한 'Photonics 15 Star'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개소했으며 위탁운영 기간 동안 국비 28억 원과 기업은행 차관 3억 원, 민간 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70점 이상을 받은 구미 센터를 제외하고 광주와 창원, 반월시화 모두 다음달 위탁업체가 교체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업주치의센터=지식경제부 정책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과 금융, 경영 등 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밀착식 전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주치의센터에 해당 분야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담주치의가 기업을 방문한 뒤 주치의의 협약과 함께 기업을 진단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디자인 산업화·국제화·특화산업 광주디자인센터 올 3대과제 박차

광주디자인센터가 12일 디자인 산업화와 국제화, 특화산업 등을 올해 3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는 최근 IDA(국제디자인연맹) 총회 광주 유치 등 광주가 아시아 디자인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맞았다며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먼저 '디자인비엔날레의 산업화'를 위해 우수디자인의 실용화와 디자인 전시의 비즈니스화 등 디자인비엔날레 산업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디자인의 국제화'는 올해 광주국제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와 함께 2015년 IDA 총회 준비, 영국 골드스미스대 등 해외 유명대학·기관 등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방안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 특화산업 육성' 분야는 광주시 5대 신 특화산업으로 선정된 '디자인융합산업'을 통해 3년간 38억 원을 투입,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 디자인산업 도약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디자인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지난 2000년 30여 개에 불과했던 지역 디자인 전문회사는 163개로 늘었고, 연평균 성장률도 5.0%에 이르렀다. 장상근 원장은 "그동안 광주 디자인산업이 양적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한 시기"라며 "IDA(국제디자인연맹) 총회 유치와 함께 디자인비엔날레의 산업화, 디자인융합산업 특화 육성은 광주지역 디자인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직장인 29% "퇴출 압박 받아왔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회사에서 퇴출 압박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1월29일~2월6일 직장인 1천32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9.1%가 회사에서 퇴출 압박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부장급(49.2%)이 가장 많았고 과장급(37.6%), 임원진(28.1%), 대리급(27.9%), 평사원(25.9%) 등이 뒤를 이었다. 방식(복수 응답)은 과도한 양의 업무(27.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에서 제외(23.4%),

안 좋은 소문(22.9%), 은근한 압박(22.7%), 연봉 삭감이나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18.8%), 관계없는 부서로 재배치(16.1%) 등의 순이었다. 퇴사 압박 원인(복수 응답)으로 상사와 마찰(28.6%)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회사 건축 정책(21.4%), 업무 실적이 좋지 않아서(19.0%), 부서 통·폐합(8.9%), 사측이 원하는 행동(8.6%)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응답자의 42.5%는 이 같은 퇴사 압박을 받은 뒤 결국 퇴사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北핵실험에도 주가 무덤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해 있다. 12일 코스피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소식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전 거래일보다 5.11포인트(0.26%) 내린 1,945.79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평동외투지역 지정해지 요건 완화 건의

광주상의, 청와대·정부에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홍서)가 12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지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날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시는 전국 21개 외투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 평동외투지역 지정 해지를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평동외투지역 입주업체들이 임대료와 보증금, 사업계획 이행 어려움 등 각종 제약으로 경영 활동에 애로를 겪어온 점을 들어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외투지역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평동외투지역은 지난 1994년 외투지역으로 지정돼 지정해지를 위한 '15년 경과' 기준과

입주를 95.8%로 '입주를 90%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63개사 중 2개사가 동의하지 않아 지적이 되지 않고 있다. '입주기업 모두가 외투지역 해지에 동의해야 한다' 해지 요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모든 기업이 지정해지에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은 기업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요건"이라며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2조의 3. 단차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 요건을 개정해 줄 것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대표, 광주전남지역 국회 의원 등에 건의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월 광주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전국최고

92.2%...낙찰률은 57%

올 1월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중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12일 경매전문 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이 1월 광주·전남 지역의 경매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2.2%로 전국평균 낙찰가율 76.5%보다 15.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은 평균 응찰자 수가 8.3명으로 전국(5.5명)보다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54건으로 전월(69건)보다 감소한 가운데 31건이 낙찰돼 낙찰률 57.4%를 기록했다. 경쟁률 1위는 모두 23명이 응찰해 1억7178만 원에 낙찰된 광주 서구 쌍촌동 대주아파트 99.8㎡(30평)형이, 낙찰가율 1위는 낙찰가 1919만 원으로 낙찰가율 166%를 기록한 북구 문

매)가 각각 차지했다. 전남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56건으로 전월(67건)보다 줄면서 낙찰률(44.8~42.9%), 낙찰가율(88.7~85.5%), 평균응찰자 수(4.6~3.5명) 등 경매지표가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전남지역 토지경매 건수는 840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일대에 34명이 응찰해 감점자 대비 671%(4290만 원)에 낙찰돼 경쟁률과 낙찰가 부문 1위에 올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45.79 (-5.11)	코스닥지수 503.72 (-1.22)	금리(국고채 3년) 2.71% (-0.01)	원·달러 환율 1090.80원 (-4.90)
--------------------------	-------------------------	-----------------------------	-----------------------------

취득세 감면 연장 9만4000가구 혜택

전남 3678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올해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전국 9만4000여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작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부동산세는 올해 1~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전국 9만479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

1633가구가 가장 많고 서울 1만4765가구, 부산 1만2218가구, 인천 7271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5만3669가구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1만가구를 넘긴 부산에 이어 경남(5906가구), 대구(4618가구), 전남(3678가구), 충북(3122가구) 등이 물량이 몰렸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해 극심한 전세난에 시달리는 세종시는 2월 입주하는 '세종 e편한세상' 아파트 983가구가 상반기 물량의 전부다. SK건설은 5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SK SKY VIEW'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 총 3498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연합뉴스

작년 국내 공사수주액 101조 목표 미달

작년 국내 건설 공사 수주액이 목표치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작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101조5061억원으로 집계돼 추정치인 110조원에 미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34조776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

세를 지속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대형 국책사업 부재와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물량 부족 등으로 13.6% 감소했다. 수도권 고속철도와 중앙선 복선전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토지조성 등 공사는 호조를 보였으나 도로·교량 등 대부분 공종이 부진했다. /연합뉴스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색형 서비스표준목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축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축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용, 평일평문 고객제-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택1

가격안내
(이웃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안정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할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쏟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런 검사도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치료로 피로회복이 필요하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가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인다라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통-9818호 (광교)